‘불교다맥 계승’ 선차문화대축전 열리다

4월22일 쌍계사 일대서 개최
제 20회 다맥 전수식도 봉행

역대 불교 다맥 계승 의미
불교 안팎 단체 다수 참여
108헌다 등 僧俗헌다 눈길

성낙두 경남지사장


쌍계총림 하동 쌍계사와 고산문화재단은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쌍계사 괘불전 및 쌍계사 일원에서 ‘진감 초의 만허선사 선차문화대축전’ 및 제20회 다맥 전수식을 개최했다.

쌍계총림 하동 쌍계사(주지 영담)와 고산문화재단은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하동 쌍계사 괘불전 및 쌍계사 일원에서 ‘진감 초의 만허선사 선차문화대축전’ 및 제20회 다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을 비롯해 쌍계사 유나 종성 스님(옥천사 주지), 보리암 주지 성조 스님, 쌍계사 강원 대각 스님, 쌍계총림 본·말사 회장 이암 스님, 쌍계사 사중 스님, 수원 봉령사 회주 스님, 각 지역 선다회 회원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첫날 행사는 입재식,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임연득 한국선다회장 인사말, 쌍계사 본·말사 회장 이암 스님 축사, 한국선다회 이사장 영담 스님 격려사, 육법공양 시연(쌍계사 선다회 백수자 허혜정, 혜원정사 선다회 김경희 회장, 석왕사 선다회, 부산선향다례, 울산다도예절법회, 금당차 문화회, 봉녕사 차문화연구원, 강릉 용연사 선다회), 108헌다례(금당), 두리차회(차인회 일동), 신라다례시현(대구 종정차문화회), 조선정통다례시현(혜원정사선다회), 진감, 초의, 만허, 고산 다맥 전수식, 회향순으로 진행됐다.

임연득 한국선다회 회장은 “차의 역사가 시작된 시배지가 있는 하동 쌍계사에서 차맥을 이어간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고산 큰스님께서는 불자라면 누구나 차도를 배워 우리 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한다고 하셨다. 큰스님 열반 후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께서 한국선차회 이사장으로 추대 됐다. 한국선차회 차맥이 수만년 잘 이어지도록 여러 차인들께서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이암 스님은 축사로 ‘봄이 오니 만물이 약동한다. 봄이 오니 만물이 봄기운을 피할 수 없구나’는 고산 스님 열반송과 법문을 전하며, “지리산이 왕성한 생명의 에너지를 느끼는 계절에 스님들과 다인들의 축전에 감사드린다. 선은 정신적인 체험이라면 차는 육감이 동원된 체험이라 할 수 있다. 쌍계사는 차와 불교가 이어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지키는 자랑스러운 종가 사찰”이라고 말했다.

한국선다회 이사장 영담 스님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해 못하다가 진감 초의 만허 선사 선차문화대축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괘불도 10년 만에 설치해 축전에 모시게 됐다”며 “스님과 다인들이 함께 108헌다를 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쌍계사 선차문화대축전은 쌍계사 차나무의 시배지 역사를 기리고, 다맥 계승 발전을 위해 열리고 있다.

2022울산 태화강 연등축제 법요식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 23일 법요식



울산불교종단연합회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태화강 둔치 일원에서 2022 울산 태화강 연등축제를 개최했다.

4월 23일 진행된 법요식에는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산옹, 백양사 주지),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정관암 대활 스님, 정지심인당 선덕 정사, 벽선암 혜진 스님, 현광사 동광 스님, 정토사 덕진 스님, 해남사 혜원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목련암 향운 스님, 대연사 대연 스님, 여여선원 효암 스님, 한마음선원 혜안 스님, 지역스님, 이병호 신도회장, 백양사 다회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삼귀의례, 내빈소개, 발원문(봉행부위원장 대활 스님), 봉행사(봉행위원장 선덕정사), 봉축사(봉축위원장 산옹스님), 격려사(이병호 울산신도회장), 축사, 청법가, 법어(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봉축가(봉축연합합창단), 사홍서원, 폐회로 진행됐다. 식전행사에서는 울산지역문화 예술인 공연을 시작으로 부처님 이운행렬, 108헌다례, 법요식, 초청가수 시민축하공연 및 지역문화 공감콘서트가 진행됐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저 태화강 물이 모든 생을 품어 큰 바다에 도달하듯 장엄한 봉축의 향연이 펼쳐져 봉축의 기쁨과 함께 서로에게 전해지게 하자”고 법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이리불교대학, 2022년 입학 및 수계법회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 관음사 주지)은 4월 24일 익산 관음사에서 2022년 32기 불교대학 입학식 및 수계법회를 봉행됐다. 이날 입학식에는 학장 덕림 스님, 송동기 부학장, 이택회 익산신도연합회 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오창록 동문회장, 최형수 마한거사림회장 등 이리불교대학 관계자들과 익산 가릉빈가 합창단 등 신행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달여간 조계종 신도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한 신입생들은 계사 덕림 스님으로부터 신도5계를 받았다. 학장 덕림 스님은 “처음 발심한 때의 신심을 잃지 않고 불교대학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수행과 전법의 원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범적인 불자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1982년 개원한 이리불교대학은 그동안 1200여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코로나19사태 속 어려움을 극복하고 23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입학식을 가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 선운사 봉축탑 점등법회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고창지역에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대형 봉축탑과 가로연등을 점등했다. 고창읍 선운교육문화회관 앞 광장에 설치된 높이 10m규모의 고창 부처님오신날 봉축탑은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라는 올 봉축주제와 함께 부처님 오신 날까지 불 밝히게 된다.

4월 22일 선운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점등법회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과 지역 스님들, 유기상 고창군수, 최인기 군의회의장, 윤준병 국회의원 등 지역 기관장들과 선운사 합창단 등 불자 300여명이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해 동림선원 개원 4주년 기념법회

4월 23일 대법당에서…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


김해 동림선원이 개원 4주년을 맞아 4월 23일 3층 대법당에서 법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김해 동림선원이 개원 4주년을 맞아 4월 23일 3층 대법당에서 개원기념법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안 스님, 주지 신공 스님, 김수원 신도회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헌공불공(동림선다회), 개원법회, 육법공양(선다회), 개회사, 삼귀의례, 찬불가(동림불모합창단), 내빈소개, 연혁보고(김진영 거사), 주지스님 인사말, 청법가, 꽃다발 공양(김수원 신도회장), 입정, 법문(지안 스님), 은암장학금전달식, 음성공양, 공지사항, 사홍서원 순으로 회향됐다.

동림선원 주지 신공 스님은 “4주년을 맞아 기도와 교육으로 한 단계 성숙되도록 하겠다. 좀 더 장학기금을 모아 많은 이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어 “‘문화, 교육, 수행’ 3가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서 한국불교 미래를 밝히는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행복과 이익을 줄 수 있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도사 반야암 회주 지안 스님은 이날 법문으로 “사찰에서의 배움은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나를 가르치는 것”이라며 “성장과 변화 속에서 남으로부터 배운 지식은 많지만 가장 기본이다. 마음속에 진정한 뜻을 모아서 자기 정성을 높여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은암장학금으로 10명에게 100만원씩 정륜 스님 외 3명, 성균관대 김기주 학생 외 5명 등 총 10명에게 1천만 원이 전달됐다.

은암문화재단은 회원들의 후원금과 동림선원 내 북카페 수카파의 수익금을 더해 매년 장학금 전달할 예정이며 지역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동림선원은 장유 불모산 자락인 현 위치에 2018년 5월 13일 문을 열었다. 개원 전 4월 30일부터 1차 천일기도에 입재했으며, 2021년 1월 2차 천일기도를 진행하여 올 6월 6일 천일기도 600일 회향을 앞두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 자비나눔 행사

양양군 6개읍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380명
상품권과 쌀 8kg 등 5천만원 상당 물품 전달



양양 낙산사와 산하 복지재단인 무산복지재단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마련한 자비나눔 행사가 4월 30일 양양군 양양읍 무산사 앞 광장에서 열렸다.

낙산사 주지 금곡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저의 은사이신 설악 무산 대종사께서는 생전에 항상 양양군민 한 분 마다 모두를 부처님이라 받들고 보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우리 이웃의 부처님들에게 자비나눔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행복하고 큰 보람이 있다”고 즐거움을 피력했다. 이날 발대식 후 금곡스님과 자원봉사자 120명은 양양지역 6개 읍면을 돌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홀로어르신들,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380명에게 상품권 10만원과 쌀 8kg 등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김주일 기자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사)대한불교법화종·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청암도선 대종사
원로원
(원로의원 일동)
총무원
총무원장 도월 관효
(실·부장·국장 임원 일동)
중앙종의회
의장 서안
(중앙종회 의원 일동)
전국교구종무원장
경북교구종무원장 서리 도광
충북교구종무원장 대행 도수
부산교구종무원장 상백
경주교구종무원장 혜문
강원교구종무원장 서리 승일
마산교구종무원장 대행 현진
창녕교구종무원장 법상
전라교구종무원장 복규
전국 사암 주지 및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92번길 17(성남동) 전화 02)762-2678 팩스 042)627-5044